

‘노키즈존’ 당신의 문제

학과: 컴퓨터 공학과 학번: 20180360 이름: 박현정

목차

1. 노키즈존의 근황 및 원인
2. 노키즈존의 확산 및 대안
 - 1) 노키즈존의 확산 및 아동의 기본권침해
 - (1)노키즈존의 확산
 - (2)아동의 기본권침해와 아동차별
 - 2) 노키즈존 관련 쟁점: ‘맘충’
 - 3) 노키즈존의 해결책
3. 노키즈존에 대한 서로의 인식 변화

1. 노키즈존의 근황 및 원인

노키즈존이란 신조어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의미한다. 신조어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가게들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별로는 여성의 78.5%, 남성의 48.4%가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유무별로는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82.2%, 만1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59.8%가 노키즈존을 알고 있다고 응답”¹⁾ 했으며 이 수치를 통해 노키즈존의 도입은 대중들의 관심에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노키즈존 확산에 대한 불만들 또한 늘어나고 있고 노키즈존에 반대 측과 찬성 측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서

1) 김도균·유보배,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제221호, 경기연구원, 2016, p.6.

노키즈존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키즈존의 찬성 입장에서는 노키즈존이 엄마들의 문제이며 원인 제공은 엄마라는 이유로 ‘맘충’이라는 혐오스러운 단어가 생기게 되었다. ‘맘충’에 대한 반발 또한 거세지면서 서로간의 논쟁은 더 커지고 있다.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있다. 한 번쯤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소란스럽거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해 두어 아이들의 소란에 의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의 소변을 보게 하는 경우, 기저귀를 갈고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다. 모두 경험하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며 이것들이 노키즈존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이다.²⁾ 우리는 노키즈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이며 모두에게 옳은 선택인 것일까?

2. 노키즈존의 확산 및 대안

1) 노키즈존의 확산 및 아동의 기본권침해

(1)노키즈존의 확산

노키즈존은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는 논란거리 이다. 다음 국내에서 노키즈존이 확산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노키즈존을 선언한 업주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연을 보면 그런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카페 주인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카페 안의 물건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았다.” 면서 “그런데도 엄마들이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노키즈존 운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북카페를 운영한다는 또 다른 업주는 “아이들이 전시된 책을 다 망가뜨려 났는데도 되레 역정을 내는 부모들이 많아 노키즈존으로 전환했다”고했다.³⁾

제시된 사례 뿐 아니라 여러 요인으로 노키즈존의 대해 수용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노키즈존 카페나 식당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그림 1)에서 노키즈존 음식점 사진을 통해, 죄 없는 아이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게 앞에 저런 팻말을 필수적으로 걸어 놓는 가게들은 더 증가 할 것이다.

2) 위의 논문 , p.2.

3) 강윤경, 「음식점·카페 ‘노키즈존’ 확산」, 『마이더스』, 2015권9호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 2015, p107.



(그림 1) 노키즈존 음식점⁴⁾

식당이나 카페는 손님들의 편의와 아르바이트생들의 편리추구를 이유로 아동의 금지 자체가 아동에게는 다소 불편하게만 여겨진다. 노키즈존을 주장하고 확산하는 이유는 이기주의적 사회 속에서 아이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의 기본권침해와 아동차별

노키즈존의 확산과 사람들의 태도로 부모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아동들은 많은 것을 경험 할 나이이다. 아이들이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체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노키즈존이 미래의 우리 사회를 대표할 아이들에게 걸 맞는 단어인가? 아동들은 ‘아동출입금지’ 라는 단어로 자유를 떨쳐야 할 어린 나이로부터 부정적인 단어에 맞게 살아가고 어른들의 그 태도를 아이들은 배우게 된다.

밑에 <표 1>에서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는 결과가 51.4%이고, 아이의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은 고작 15.7%에 불과하다. 어른들의 이기심은 아이가 환영 받지 못하는 환경에 살아가게 한다.

<아이의 기본권 VS 고객의 행복추구권>					
구분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고객으로서 행복추구권 있다	그렇지 않다	26.0	15.7		6.7
	보통이다	51.4	15.9		29.8
	그렇다		14.4		63.5

<표1> 아이의 기본권과 고객의 행복추구권과의 투표결과(출처: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⁵⁾

4) 임혜지, 「“노키즈존=아동차별” 인권위 권고에 업주들 당황」,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7.11.2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049>

5) 김도균·유보배, 앞의 논문, p.12.

노키즈존의 등장으로 아동 차별의 문제가 커지면서 <표1>과 같이 아이의 기본권은 무시되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아직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며 노키즈존의 부당함을 주장할 만한 역량은 되지 않지만 어른들처럼 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갖고 있다. 모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취급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다음 데일리안 기사에 따르면 아동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2017년에 들어 ‘맘충’들의 고충을 다루는 기사들이 생겨났다. 노키즈존 현상에 관한 기사들에서 아동은 피해를 유발하는 통제 불가능한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아동은 혐오적 언어로 지칭되지는 않았다. 한편 아동을 지칭하는 언어들은 아동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을 극대화하는 표현들로, 아동을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한 존재로 또는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식의 기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⁶⁾

위에 학위논문처럼 노키즈존은 애완동물 금지와 연상된다. 아동들을 혼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남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애완동물 금지 뿐 만 아니라 음식물 금지, 촬영 금지, 출입 금지와 같이 아동을 사물이나 동물로 칭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노키즈존이라는 용어는 음식점이나 카페 뿐 아니라 많은 장소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기본권 침해와 아동차별의 의미인 노키즈존을 당연시하며 성장하면서 그것의 문제를 모르며 성장 할 것이다. 점점 사회는 인간 한명 한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노키즈존 관련 쟁점: ‘맘충’

노키즈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그 원인이 ‘엄마’라는 쟁점이 생긴다. 그것에 대한 혐오스러운 단어도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맘충’이라고 부른다. 맘충이란 엄마를 뜻하는 영어 ‘mom’과 벌레 ‘충’을 결합한 합성어이다. 공공장소에서 아이의 몰상식한 행동에도 부모가 그것을 정당화하는 부모를 비하하는 말로 ‘노키즈존’ 논란과 함께 퍼지고 있다.⁷⁾ 이 맘충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정당화된 행동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 또한 존재한다. 현실은 이러한 부모들도 아이들을 공공장소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눈치 보는 사회가 되고 있다.

모든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일반화 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엄마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하철에서 5개월된 아이 입을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KTX에서 아이가 칭얼대서 2시간 내내 통로에 앉아서 왔다는 예시들이 있다. 이것을 ‘집합적차별의식’이라 부르는데 민폐행동을 하지 않는 엄마들까지 ‘맘충’ 단어에 영향을 받아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⁸⁾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 때문에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도 눈치 보며 공공장소를 돌아다니고 있다.

6) 최미라,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낙태, 안락사, 노키즈존과 임신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49.

7) 이경식, 「[독자위원칼럼]노키즈존」,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5.8.31.,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816#08fn>

8) EBS, 「노키즈존과 ‘맘충’」, 『지식채널e』, 2018.9.25.,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958048>



(사진 2) KTX에서 칭얼대는 아이로 인해 피해있는 엄마의 모습⁹⁾

아이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시설 제공 불충분 또한 부모와 아이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까지의 피해를 만든다. 아이의 기저귀 갈 곳이나 KTX에서도 아이를 위한 공간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부모들이 벤치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에서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맘충이 생기는 이유라는 것보다 아이를 위한 시설 불충분의 이유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집 밖에서 편하게 쉴 공간은 없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하여 부모들은 사회에서 더 위축되어 가며 ‘맘충’ 단어에 의식하며 지낼 것이다.

‘맘충’은 있는데 왜 ‘파덜충’은 없을 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사회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보면 보통 엄마들만 언급하고 아빠들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2>를 통해 여성이 노키즈존에 대해 모든 면에서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를 통해 남성이 여성보다 노키즈존에 피해가 적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들보다 노키즈존과 맘충에 대한 스트레스와 육아의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M(SD)	남성 M(SD)	t
논쟁에 대한 지식	3.73(1.994)	3.58(1.161)	1.291
도덕적인 문제 동의	3.42(1.125)	3.38(1.185)	.264
일반적인 찬성/반대	3.20(1.290)	3.47(1.180)	-2.035*
도덕적 정당화 정도	3.19(1.181)	3.53(1.095)	-2.760**
합법화/법제화 필요성	2.93(1.216)	2.91(1.232)	.177
1) 일반 고객들의 권리	3.41(1.192)	3.59(1.127)	-1.400
2) 사업주의 권리	3.65(1.162)	3.89(1.118)	-1.944
3) 근로자의 권리	2.81(1.176)	3.18(1.253)	-2.761**
4) 아동의 권리 침해	3.10(1.241)	2.74(1.188)	2.716**
5) 부모 권리 침해	3.20(1.194)	2.79(1.166)	3.209**
6) 예절교육 실패	3.44(1.328)	3.35(1.377)	.591
7) 소란스러운 아동	3.33(1.290)	3.58(1.231)	-1.793
8) 공간의 의미 다원화	3.55(1.231)	3.69(1.024)	-1.159
9) 아동 배려와 이해 부족	2.79(1.024)	2.57(1.231)	1.605
10) 양육 고충 이해 부족	2.73(1.231)	2.55(1.227)	1.313
11) 사업주의 마케팅 전략	3.09(1.192)	2.80(1.175)	2.261*
12)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2.74(1.122)	2.90(1.170)	-1.296
13) 이용목적에 따른 구별	3.59(1.065)	3.62(1.029)	-.243
14) 배제&차별 행위	3.02(1.292)	2.66(1.233)	2.612**
N	183	157	

<표 2> 성별에 따른 노키즈존 판단¹⁰⁾

9) 위의 프로그램.

10) 위의 학위논문, p.108.

여성의 혐오와 남녀의 대한 차별 대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김치녀’가 무슨 뜻인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사회에서 ‘카페+대낮+전업주부+수다’가 조합되면 남편 뼈 빠지게 일할 시간에 비싼 유모차 끌고 카페에 모여 수다나 떠는 팔자 좋은 무임승차자가 탄생한다. 그런 여자들이 싫은데, 그 싫은 인간이 아이를 방치하고 심지어 똥 기저귀를 식탁 위에 툭 올려놓고 갔으니 꼭지가 돌 만큼 화가 나지 않겠는가. 이를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말하니 노키즈존은 ‘부모’ 탓인데 왜 여성혐오로 해석하느냐는 이들이 있었다. 아니올시다. 논쟁을 추적하면 “요즘 부모들”보다 “요즘 엄마들”을 성토했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참고로 “요즘 아빠들”을 들먹이는 경우가 없다.¹¹⁾

위의 제시한 것과 같이 노키즈존이 심각해진 것은 부모가 아닌 엄마를 탓한다. 공공장소에서 엄마뿐 아니라 아빠들의 문제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엄마들의 문제라고 단정 짓고 아빠들을 감싸주고 있다.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갑질하고 피해 주는 중년층 남성들이 더 많다. 그것에 대한 비판은 없고 오히려 엄마들만 피해를 받고 있으며 어디를 가든 맘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위축되어 다니게 된다. 위의 팔자 좋고 아이를 방치하는 특정 엄마들 때문에 맘충이라는 단어가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 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며 노키즈존은 엄마의 잘못이 아닌 부모의 잘못된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3) 노키즈존의 해결책

앞에서 노키즈존의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노키즈존 해결책에 대해서는 없는 것일까.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서로의 노력과 배려가 있다면 이러한 쟁점들은 하나씩 사라져 갈 것이고 이 논쟁에 대한 불만들이 줄 것이다.

첫 번째는 부모와 아이의 교육을 통한 해결책이다. 노키즈존에는 아이 뿐 아니라 부모의 문제도 있다. 어떻게 부모가 대처해야 하며 아이의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과 훈육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공공장소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부모들의 태도 개선 또한 중요한 해결책이다. 그들의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직원들과 손님들은 그것의 대해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의 교육도 필요하다. 부모님의 교육이 없이 식당이나 카페에 오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며 다른 테이블에 가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미리 식당을 가기 전에 아이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피해가 가는 행동들을 미리 경고해 준다면 아이들은 조금 그것을 이해해가며 이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지켰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면서 ‘이것을 했으니깐 잘해서 줄게.’ 라는 말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다음에도 피해 가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줄 것이다.

11) 오찬호,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서울: 블랙피쉬, 2018, pp.36-37.

두 번째 해결책은 아이 전체의 배제가 아닌 아이의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식당에서는 아이들 입장 자체 출입을 금지하려 한다. 아이 전체의 배제는 부정적인 면을 담고 있고 아이에 대한 차별대우가 느껴진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놓는다면 부모들은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경고를 줄 것이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이들의 금지가 아닌 그 행동에 대한 경고를 일러 주는 것은 부모와 아이가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 또한 줄어 들 것이다.

마지막 해결책에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룸이나 수유실 등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식채널 e를 통해 노키즈존의 논란이 거의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그 나라들에는 아이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는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었고 독일에서는 아이와 부모를 위한 8,256개의 공공 도서관, 5천 개의 작은 도서관이 제공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내 어린이 전용 공간이 있다. 스웨덴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는 쇼핑센터와 공공장소에는 유아 공용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높은 아기 의자 구비 등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시설들이 제공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KTX 18개 객실 중 단 1개 객실에만 있는 유아 동반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있는 곳이 드문 기저귀 교환대, 모유 수유 공간의 부족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¹²⁾ 노키즈존의 유래는 아이와 부모 문제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시설 부족 때문에 도입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처럼 어린이 공간 마련에 힘쓴다면 부모들의 불평과 아이들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 또한 줄어들 것이며 노키즈존이라는 말 또한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3. 노키즈존에 대한 서로의 인식 변화

실제 수치에 의하면 노키즈존 매장을 직접 찾아서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¹³⁾ 결과적으로 노키즈존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는 적은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다. 노키즈존의 원인은 서로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손님들과 직원들은 자기가 아니라 남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며 서로를 탓한다. 서로를 탓하기 보단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다시 한 번 아이에게 조용히 할 것을 강조하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은 아이의 소란에 대해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 일 때가 있었고 그 시기에는 모두 울고 소란 피었을 것이다. 그 시기에 집에만 처박혀 있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외식을 하고 공공장소에 갔으며 그 장소에서 물론 소란을 피었을 것이다. 왜 다른 아이가 소란을 피우면 배제를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은 괜찮다고 정당화 하는 것일까. 당신들도 그랬듯이 아이들은 모두에게 차별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한다.

아이 뿐 아니라 불편을 주는 손님들은 많았을 것이다. 다만 아이들은 중년층과 노인들 그리

12) 위의 프로그램.

13) 김도균, 「'노키즈존' 과연 필요할까」, 경기연구원, 『한국소비자원』, 2016, p48.

고 부모들과는 달리 옳지 못하다는 주장을 할 권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한 아이들에 대한 배제 구역만 생기게 된 것이다. 노키즈존을 통해 아이들을 배제 하려는 집단이 늘어난다면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은 줄어들 것이고 2차적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 해 질 것이다. 또한 배제가 당연한 줄 알고 자란 아이들은 노노인존, 노중년층존, 노남자존, 노여자존 등 더 만들어 나갈 것이다.¹⁴⁾ 자신이 겪으면 혐오이고 반대하면서 지금 그 아이들이 겪는 배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기심이다. 자신들이 노키즈존 같이 배제를 당한다면 차별이라 말하고 적극 반대하면서 인간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할 것이다. 아이들도 똑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입장만 고려하고 자신이 이득이 가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노키즈존을 주장 할 때 자신의 피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는 사회가 되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2차적인 피해를 막고 자신에게 돌아올 배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키즈존 인식의 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아이들 혐오가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고 그 피해로 인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이 아이들을 타락시키고 미래에는 그 아이들이 더 큰 악 순환을 가져올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 역지사지 인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마음 불편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의 관심이자 미래의 희망이고 주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다. 노키즈존이 아닌 '굿키즈존'과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14) 위의 책, p.37.

참고문헌

- 오찬호,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서울: 블랙피쉬, 2018, pp.36-37. 37.
- 강윤경, 「음식점·카페 ‘노키즈존’ 확산」, 『마이더스』, 2015권9호,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2015, p107.
- 김도균, 「‘노키즈존’ 과연 필요할까」, 경기연구원, 『한국소비자원』, 2016, p48.
- 김도균·유보배,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제221호, 경기연구원, 2016, p.6. 2, 12.
- 임혜지, 「“노키즈존=아동차별” 인권위 권고에 업주들 당황」,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7.11.2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049>
- 이경식, 「[독자위원칼럼]노키즈존」,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5.8.31.,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816#08fn>
- 최미라,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낙태, 안락사, 노키즈존과 임신부 배려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49 . 108.
- EBS, 「노키즈존과 ‘맘충’」, 『지식채널e』, 2018.9.25.,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958048>